



안주마을이야기

안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61호



2026년 1월호

새해를 맞는 방식

떠들썩한 변화와 기대한 다짐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성실한 오늘을 쌓아 올린 안주 사람들이 있다. 새해에도 화려한 수식이 대신 마음속 깊이 품은 작은 희망을 꺼내어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다시금 열어간다. 안주 곳곳에서 저마다의 첫발을 내딛는, 우리 곁의 이웃들을 만나왔다.

사진설명: 옹진 최영진 농부와 김동복 어르신이 수확한 시금치를 든 채로 웃고 있다.

- 안두콩, 제주북케이전워크 참가기 ... 8P
- 숲의풍경 유아림, 이종철 이야기 10P
- 화정마을 어르신들 상복 터졌네 ... 12P
- 12월 생태놀이터 축제 ... 16P

관련 기사 2~7면



새해가 시작되면 누군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일을 바꾸고 자리를 옮기고 익숙했던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든다. 달력이 바뀌는 순간 각자의 삶에도 작은 결심과 변화가 있든다. 하지만 같은 시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 전 출근길에 오르고, 가게의 불을 먼저 켜며 전날과 다르지 않은 손놀림으로 하루를 연다. 새해라는 말이 특별하지 않을 만큼 이들의 하루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시작된다. 버스를 몰고 첫 운행에 나서는 기사, 새벽 공기에 실린 채소를 매장으로 옮기는 농부, 불을 지피고 육수를 올리는 식당 주인, 출근길을 지나는 이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고, 새로운 공간과 메뉴로 한 해의 첫 문을 여는 사람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완주 곳곳에서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변화와 반복이 나란히 놓인 시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을 만났다.

차고 뜨거운 2026년 첫날을 여는 사람들



차에 오르는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서보곤 기사

새해 첫날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서보곤 씨

06:20 내 첫 손님은 현장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들

봉동읍 둔산리에 사는 서보곤(53) 씨는 완주군 마을버스 운전기사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대부분의 주민들이 달콤한 휴식을 취할 시간인 오전 6시 20분 버스에 시동을 걸었다. 첫 차 운행을 위해 봉동읍 차고지에서 삼례터미널로 이동한 서 씨를 만났다.

Q. 새해 첫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A. 오늘부터 삼례터미널~용진 운곡지구까지 운행을 맡게 됐다. 아침 6시 50분에 출발해서 삼봉지구와 봉동읍을 지나 완주군청, 지암마을까지 운행한다. 근무 형태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전반은 아침 6시 정도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반은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게 된다. 노선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Q. 마을버스 운전을 언제부터 했는지

A. 횡수로는 3년째다. 지난 2024년에는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저보다 오래 일하신 분들은 3년 정도까지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Q. 마을버스 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다

A. 주로 현장일 하는 분들이 많이 타신다. 특히 삼례~봉동 가는 노선에 많으신데 인력사무소가 가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손님이 적을 것 같다.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신다.


Q. 보람은

A. 마을버스 특성상 어르신들이 물건 들고 타신다. 조금씩 거들어 드리면 손님들이 고맙다고 고생하신다. 가끔은 고생한다고 음료수나 간식을 주실 때 보람 느낀다. 특히 오늘부터 마을버스 운전원이 순환근무에서 고정근무제로 바뀌어서 운행을 시작했다. 특정 노선의 고정근무는 노선도 익숙하고 승객들도 익숙한 분들이어서 마을버스 특성상 정감있는 버스 분위기를 낼 수 있어 모두 반기는 상황이다.

Q. 어려운 점은

A. 일부 승객 중에는 가끔 버스를 놓치면 불평 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마을버스 특성상 버스가 자주 있는 편이 아닌데 “오래 기다렸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운행을 빼먹었냐”고 타박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은 술 마시고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태울 수도 없다. 달래고 하기도 하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운전기사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있다. 버스와 정류장의 통신장애 때 기사는 모르는데 왜 뜨지 않는지 따질 때 속상하기도 하다.

Q. 새해 다짐이나 포부는

A. 제가 완주군시설관리공단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다. 직원들 휴게시간 확보 등 처우개선과 관련해 사측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다. 노조가 올 8월 9일 출범했는데, 운행에는 문제 없는데 애로사항 청취해서 개선하는 게 힘들다. 가장 큰 숙원은 완주군을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50여 대인데 정비고가 없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고가 하루 빨리 지어지면 좋겠다. 마을버스본부 신속도 이뤄지면 좋겠다. 현재는 노선별 차고지 개념이지만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휴게공간이자 관련 업무의 중심이 되는 본부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주군마을버스는



완주군 마을버스는 모두 40여 개 노선 31대의 버스가 운영 중이다. ‘그린시티’버스는 삼례~용진 지암마을, 삼례~고산 노선을 운행하는 비교적 큰 버스다. 현재 완주에서 6대가 운행중이다. 승객이 많은 노선에 투입된다. 버스요금은 500원이며 최대 2회 환승이 가능하다.

시작한 지 두어 달, 국밥은 예전 맛 그대로

05:40

삼례 콩나물국밥집 '미가옥'
안은희 사장

기존 가게 이어받으며 영업 시작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소개되며 벌써 입소문
이젠 파 까며 울던 초보사장 딱지 떼

1월 5일 해가 뜨기 전 삼례의 한 골목에 불이 먼저 켜진다. 새벽 5시 40분 콩나물을 삶고 육수를 올리며 국밥집의 아침이 열린다. '미가옥 콩나물국밥' 안은희 사장은 아직 도시가 잠든 시간 늘 같은 순서로 가게 문을 연다.

삼례에 자리한 '미가옥 콩나물국밥'은 기존 국밥집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9일 다시 문을 열었다. 간판은 그대로 두고 안은희(47) 사장은 내부를 정비했다. 의자와 조명을 바꾸고 동선과 조리 환경을 손봤다. 완전히 새로 꾸미기보다는 오래 다니던 손님들이 낯설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고쳤다.

안 사장의 하루는 새벽 5시 40분 전 가게 불을 켜는 일로 시작된다. 콩나물을 삶고 육수를 올린 뒤 뚝배기를 데우는 순서다. 국밥은 뜨거워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뚝배기는 끓는 물에 미리 담갔다 사용한다. 오전 6시 문을 열면 점심시간까지 쉼 없이 국밥을 낸다. 영업시간은 오후 2시까지이며 매주 목요일은 휴무다.

음식 장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해왔던 그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같은 일의 반복에 싫증을 느끼던 중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인을 통해 가게를 소개받았고 약 2주 동안 함께 배우며 운영을 준비했다. 오전 장사 후 비교적 여유가 있는 오후 시간도 이 선택에 영향을 줬다.

두 달 남짓 운영해보니 동네의 특성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긴 맛이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안 사장은 국밥집을 이어받은 만큼 기존 손님들이 기억하는 맛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 콩나물은 같은 공장에서 계속 공급받고 육수와 조리 방식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손님상에 낼 콩나물국밥을 토렴하는 안은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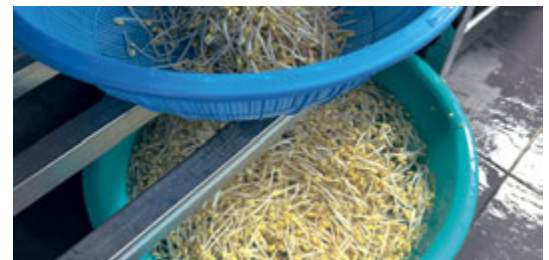
청결 관리 역시 가게를 맡은 첫날부터 기준을 세웠다. 손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매일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일 점심이나 주말에는 대기 줄이 생기기도 했는데 안 사장은 아직은 모든 상황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사무실에서 서비스직으로 전환한 만큼 몸이 먼저 반응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뚝배기를 들다 보니 손목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파를 손질하며 눈물을 훔치던 날도 있었다. 안 사장은 "처음엔 정말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덜 운다"며 웃었다.

그만큼 새로운 단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고 20대부터 50대까지 지인 추천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잦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가게가 소개되면서 뜻밖의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빨리 알아봐 주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일단 10년은 하고 싶어요. 몸이 허락하면 더 하고 싶어요."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며 시작하는 하루는 이제 안은희 사장에게 가장 자기다운 시간이 됐다. **☞**



05:30

용진 분식집 '옹달샘' 전연수 사장



단골손님과 대화하며 웃는 전연수 사장

출근길 손님들의 인기메뉴? 당근김밥



전주와 용진을 잇는 길목, 동트기 전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불빛이 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5평 남짓한 분식집 '옹달샘'이다. "그냥 쉬려다가 버릇처럼 눈이 일찍 떠져서 결국 나왔다"는 전연수(62) 사장은 새해 바로 다음 날에도 가게 불을 밝혔다.

한때 역대 연봉의 보험관리사로 기세를 떨쳤던 전 사장이 단정한 정장 대신 추억의 손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은 지 3년째다. 삶의 굴곡에서 커다란 시련을 마주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일어섰던 그의 단단한 뚝심은 김밥 속을 꽉 채소들처럼 견고하다.


분식집의 대표메뉴인 '옹달샘 김밥'은 직접 부친 따끈한 지단과 정성껏 볶아낸 당근이 듬뿍 들어간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는 비결은 바로 '간 맞추기'다.

"삼천동에 맛있어서 자주 갔던 김밥집이 있어. 거기 사장님이 장사 접으시기 전에 김밥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봤는데 '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집도 그래. 막 쥘 때도, 시간이 좀 지나서 식어도 맛있으려면 밥이랑 속 재료의 간이 딱 맞아야 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조언과 경험을 통해 빚어진 조화로운 맛은 경기도에서 온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마저 단골로 만들었다. "전주만 오면 이 집 김밥이 생각난다"며 찾아온 여동생 같은 손님에게 전 사장은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며 안부를 물었다. 김밥을 마는 짧은 시간 동안 아들 부부 이야기며, 자식 키웠던 고충, 여행 다니는 즐거움을 나누느라 두 사람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반가운 손님들이 모두 다녀간 후, 오전 11시쯤 전연수 사장이 장사를 마무리한다.

"단골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야. 새해에는 일도 욕심껏 하기보다 적당히 하고,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캠핑 다니며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환하게 웃는 전연수 사장의 얼굴 위로 장사꾼의 수완보다 이웃의 깊은 정이 먼저 읽힌다. 일은 적당히, 가족과는 뜨겁게 살고 싶다는 그의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소망이 옹달샘 김밥처럼 꼭 차게 영글어가길 바란다. 

06:30

매일 새벽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시금치 농부 최영진



최영진 씨가 새벽 로컬푸드직매장에 신선한 시금치를 납품하고 있다.

17년 농사경력에 10년 단골만 서른 명




겨울 햇살이 길게 드리운 오후 2시 용진 지암마을의 한 비닐하우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수확을 기다리는 시금치의 초록빛 생명력과 흙내음이 반겼다. 이곳에서 형수 김용복(74) 어르신과 나란히 앉아 시금치 뿌리의 흙을 털어내며 새해를 시작한 최영진(59) 농부를 만났다. 그는 늦가을에 심어 겨울 서리를 맞고 자란 시금치를 수확하고 있었다.

“이게 ‘포향초’라는 종류의 시금치인데, 일반 시금치보다 잎이 두껍고 붉은 뿌리의 단맛이 더 좋아요. 게다가 추위를 이겨내고 자라니까 더 달고 맛있지.”

영양분이 가득한 뿌리를 최대한 살려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는 손길에는 17년 차 베테랑 농부의 섬세함이 묻어났다. 로컬푸드매장 창립 초기부터 활동해온 그는 봄가을 연근, 여름 복숭아, 겨울 시금치까지 계절마다 정직하게 땀 흘려온 지역 먹거리 파수꾼이다. 10년 넘게 인연을 맺은 단골만 서른 명으로, 단골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들이 영진 씨를 찾곤 한다. 입소문을 타고 찾는 손님이 늘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걸고 매일 새벽 6시 반이면 가장 신선한 시금치를 매대에 올리는 자부심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다.

해가 바뀌어도 책임감과 성실함은 여전하다. 가족과 떡국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은 새해 첫날이 지나고, 삶의 터전인 밭과 영진 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에게 새해 바라는 바가 있는지 물었다.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이 제일이죠. 가족들이 건강하고, 농사도 작년보다 잘 되길 바랍니다. 또 소비자분들도 우리 시금치 드시고 모두 든든하고 건강한 새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우스에서 다음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시금치를 수확하고 있는 영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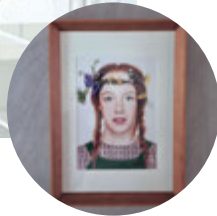
새 도전

고산에 '무지개 공방' 여는 박은미 작가

놀이터이자 공유화실 됐으면



고산미소시장에 공방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박은미 작가



전주에서 고산으로, 다시 삼봉에서 고산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첫 공간을 꾸미고 있는 '무지개 공방' 박은미 작가를 만났다.

Q. 자기소개와 첫인사

A. 삼우초 학부모로 고산과 연을 맺어 방과 후 강사와 돌봄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해온 박은미입니다. 미술과 목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 이곳에 저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 '무지개 공방'이라는 이름과 그 담긴 의미

A. 제 별명이자 제가 사랑하는 미술, 목공, 교육 등 여러 색깔의 일을 아우르는 이름이에요.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함께 연구하는 '예술·문화 허브'이자 아이들의 배움터로 키워가고 싶습니다.

Q. 공방에서 가장 공을 들이거나 기대하는 부분

A. 직접 만드는 간판부터 2층의 아이들 놀이 공간까지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특히 1층은 작가들이 집을 벗어나 편하게 작업하는 공유화실로, 2층은 시장 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 중입니다.

Q.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일

A. 무지개 공방이 누구나 들리 그림도 그리고 수다도 떠는 다정한 사랑방이 되면 좋겠어요. 새해엔 공방 오픈도 잘 마치고, 개인적인 소망인 5kg 감량도 꼭 성공해 활기찬 새해를 보낼게요!

삼례 카페 헤이니 이혜인 사장

SNS 화제의 그 '두쫘꾸' 신메뉴로!

혼자 매장을 꾸려가는 이혜인 사장은 새해와 함께 새로운 선택을 했다. 카페 헤이니에 처음 선보인 메뉴는 '두바이쫘꾸쿠키'다.

두바이쫘꾸쿠키는 지난해 12월 20일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손님들의 요청으로 이벤트 메뉴로 처음 판매됐다. SNS에서 유행하던 메뉴를 연말 선물용으로 준비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혜인 사장은 "한 달 정도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재료 수급도 쉽지 않고 원가 부담도 있어 잠깐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연말을 지나 새해가 됐지만 찾는 발걸음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매장 오픈 시간인 오전 11시에 맞춰 방문하는 '오픈런'도 생겼다. 이 사장은 "기다려서까지 찾아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웃었다.

현재 두바이쫘꾸쿠키는 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되고 있다. 큰 사이즈는 6,800원, 기본 사이즈는 5,500원이다. 1인당 최대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 예약글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카페 헤이니의 다른 디저트 메뉴들도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에 인기가 높았던 휘낭시에와 꾸덕한 치즈케이크에 이어 두바이 열풍을 타고 선보인 신메뉴 '두바이쫘꾸김밥'과 딸기를 활용한 '딸기두쫘꾸'까지 자연스럽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 메뉴들은 정해진 수량으로 판매되며 단골손님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두바이쫘꾸쿠키에 이어 '두바이초코치즈케이크샌드'도 선보였다. 메뉴 개발과 준비는 혼자 감당하고 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가장 큰 동기다. 두바이쫘꾸쿠키는 현재 2월 말에서 3월까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지만 이 사장은 "당분간은 지금의 흐름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보]

-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매주 일 휴무) 오전 11시~ 오후 4시
- 주 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16,1층
- 문 의: 0507-1407-2633
- 인스타그램: cafe_heynee



완주를 넘어 제주로 간 완두콩

JEJU BOOKCATION WEEK 2025 참가기

“책은 언제나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최초의 감각과 언어는 오롯이 인간의 몫입니다.” 이 문장을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했다. 행사의 방향을 설명하듯 이번 북케이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문장이었다.

겨울의 초입인 지난 2025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북케이션 위크(JEJU BOOKCATION WEEK) 2025’에 완주의 창작자로서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서 온, 누구보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북케이션(Bookcation)’이라는 이름처럼 책(Book)과 휴식(Vacation)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전국 50여 개의 독립서점과 출판사, 작가들이 모여 로컬 창조성의 정수를 보여준 자리였다.



■ 제주에 닿은 완주의 기록

이번 행사는 제주북케이션위크 협의체(제주상회, 문우, 밤수지앤드라미 등)의 기획 아래, 전국 각지의 개성 있는 서점과 출판사들이 한곳에 모인 자리였다.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시장을 넘어, 만드는 사람의 고민과 읽는 사람의 취향이 교차하며 서로 깊게 교류하는 대화의 장이었다.

완두콩은 늘 그랬듯이 완주의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성남의 활기찬 책방 ‘책덕방’, 다정한 동화책을 펴내는 송미정 작가와 나란히 앉아 서로의 부스를 응원하며, 낯선 공간에서의 긴장을 설렘으로 바꾸어 나갔다. ‘완주’라는 생소한 지역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원래 알던 자의 반가운 눈빛으로 다가와 준 분들 덕분에 부스는 금세 온기로 채워졌다. 방문객들이 지나간 후에는 꾸준히 이어온 완두콩의 로컬 콘텐츠에 깊은 애정을 보이는 손님들이 찾아왔다. 레젠보젠박스 강석운 대표, 북살롱이마고, 월간 옥이네, 독립출판 S Family 소진수 대표 등 많은 분이 완두콩의 활동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쉬는 시간에는 눈독을 들였던 부스를 구경하기도 했는데, 사라져가는 지역의 목욕탕 문화를 기록한 목욕탕 전문 잡지 《집앞목욕탕》을 발견했을 때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듯한 반가움에 곧장 소장하기도 했다. 지역은 달라도 ‘기록’을 향한 마음은 하나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 지금처럼 꾸준히 나아갈 것

사흘간의 여정을 마치며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것은 ‘로컬 콘텐츠의 무한한 확장성’이었다. 완주의 작은 마을 이야기가 제주라는 낯선 땅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영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앞으로 완두콩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안의 공동체를 기록하면서도, 지역이라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넓은 세상과 소통할 때 우리만의 이야기가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주에서 얻은 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동력 삼아, 새로 찾아온 2026년에도 완주의 가치를 정성껏 길어 올리는 완두콩이 되겠습니다. 낯선 곳에서 마주친 수많은 인연과 그들이 건네준 응원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완주에서 더 깊고 단단한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



제주북케이션위크 JEJU BOOKCATION WEEK | 2025. 12. 12. - 14. 책과 휴식 그리고 창의적 만남

지역의 출판사와 책방, 창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과 독서를 매개로 교류하고 영감을 나누는 도서 문화 축제. 책과 휴식,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티브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감각의 북페어다.



JEJU BOOKCATION WEEK 2025

A Cultural Fair Where Books, Rest, And Creativity Meet In Jeju



제주 북케이션 위크 둘째 날, 방문객들로 활기를 띠는 행사장.



완두콩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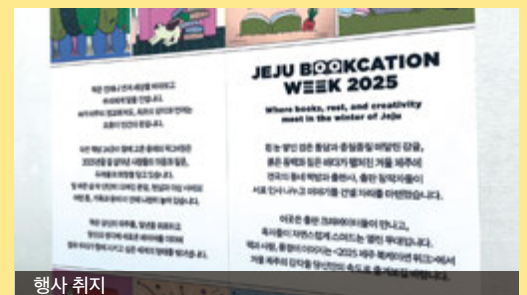
제주 로컬 매거진 'iiin' 발취한 문장 전시 '문장이 내리는 방'



목욕탕 전문잡지 집앞목욕탕



라이브러리 공간



행사 취지



첫날 저녁 네트워킹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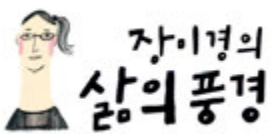
제주의 맛이 담긴 도시락 '동고랑'



책덕방의 블라인드 도서



쉬거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위크엔드!



봉동 낙평리 유아름, 이종철 이야기

2013년에 임순례 감독이 영화로도 만들었던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남쪽으로 튀어』는 기존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찾아 ‘남쪽’으로 떠나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산에서 빵집 ‘구운’을 운영하다 봉동에서 새로운 빵집 ‘위크엔드’를 연 유아름(77년생) 씨와 이종철(79년생)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살이를 뒤로하고 아무튼 남쪽으로 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서울의 남쪽에 있는 완주로 터를 옮겼다.

“삶터를 옮겨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종철 씨도 나도 40대가 되어가며 도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렇다면 지역으로 가서 살아보자는 생각이 통했죠. 지역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_아름



베이커리 담당 유아름 씨와 음료 담당 이종철 씨

“완주로 내려올 결심을 했을 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서울에서 늘어갈 것을 상상을 못하겠는 거예요. 남쪽으로 도망간 거죠. 그때 유명했던 소설이 『남쪽으로 튀어』였거든요. 솔직히 대단한 포부 그런 것 없이 그냥 도망치자, 노년에 늘어서라도 숨 쉴 곳으로 도망치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마침 잠깐 몸담았던 회사의 친구들이 완주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완주가 귀농귀촌 홍보를 많이 하던 때였어요. 그때 내려와서 지금껏 살고 있죠. 아름 씨는 이사 오듯 훌가분하게 왔고, 저는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고 싶은 거죠.” _종철

아름 씨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태어났지만 유년시절은 경기도에서 보냈고 인생의 절반 이상은 서울 이태원에서 살았다. 중학교 때 미술을 배우고 예술고에서 도예디자인을 전공했다. 서울에 살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건설회사에 취직해 10년 동안 하도급 계약팀에서 일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지나갔던 남산 소월길에서 내려다본 서울풍경에 반해서 언젠가 혼자 살게 되면 이태원에 살으리라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이태원 살면서 타지역 사람으로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한다. 다양한 사람이 뒤섞여 있다 보니 굳이 어디 출신, 어느 지역, 어느 학교, 가정 형편 등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틈틈이 여행을 다녔고 이태원과 해방촌, 홍대 근처에서 열리는 폴리마켓에서 물건을 팔던 종철 씨를 만났고, 약간의 돈을 모아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을 때 커다란 냉장고와 가정용 오븐을 사서 「마사 스튜어트 리빙」 같은 잡지를 보며 혼자서 베이킹을 시작했다. 2012년 서울시청 행사에서 도시양봉을 처음 접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꿀벌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가 (beesavers) 모임을 2019년까지 유지했다. 완주로 내려오기 전에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잠시 일했고 지금은 베이커리 카페 워크엔드에서 종철 씨와 함께 베이킹을 하고 있다. 잠깐 들었던 아름 씨의 살아온 이력을 몇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인가 이태원에 있는 영어서점 잡지코너에서 「마사 스튜어트 리빙」이라는 잡지를 봤는데 연예인 소식 같은 것은 없고 생활, 베이킹, 정원 꾸미기, 바느질, 뜨개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잡지를 보며 공부를 많이 했죠. 잡지에서 봤던 것들을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면서 만들었죠. 그때 처음 만들어 본 게 마들렌, 스콘, 쿠키 이런 것들이었어요. 만들



해질무렵 봉동 낙평리의 베이커리 카페 워크엔드 전경과 매장 내 커피 등 음료와 빵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아름 씨가 베이커리에 대한 영감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았던 미국의 리빙 잡지

어서 친구들 맛보라고 막 나눠주던 때였는데 맛있었나 봐요. 퇴근하면 집에 와서 매일 베이킹을 했죠. 내가 만든 결과물을 선물했을 때 받는 사람이 흠족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에 내가 기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만드는 것 자체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_아름

“아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집에 가니까 책장에 잡지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유명한 마사 스튜어트 잡지가 잔뜩 있는 거예요. 거의 초창기 책부터 최근호까지 다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며 외국서적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구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함께 호흡을 하고 있구나. 뭔가 깊이가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서재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아름 씨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름 씨의 관심과 경험을 알게 되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_종철

아름 씨는 2013년에 이태원에서 종철 씨를 처음 만났다. 동네에서 열리는 폴리마켓을 구경하러 갔는데 종철 씨는 무언가를 팔고 있는 셀러였다. 그 다음에 용산 해방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길 갔는데 거기서 또 종철 씨를 보게 됐고 홍대 앞에서도 둘은 또 그렇게 만나게 됐다. 그러다 둘은 조금 더 친해졌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좋은 이야기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껏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은 6시 반에 출근해서 7시부터 빵을 만들기 시작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순차적으로 빵이 나오고요. 저는 이 일이 아니어도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베이커가 되면서 조금 변화된 점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로 거짓 없고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완주에 와서는 그 일이 바로 베이킹인거죠. 완주 내려오기 전에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잠깐 일을 하기도 하고 도시양봉으로 사회와 자연환경에 대한 주제로 내 삶의 의미나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등을 인지하고 잘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주에 와서 베이킹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내다 보니 그 전에 못 느꼈던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발산하는 것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단순하게 커피 한 잔, 빵 하나 만드는 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 먹는 사람에 대한 상상을 해요. 근본적으로 당연한 것들,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내 삶에 녹아든 느낌이고 그것이 생업을 통해 발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_아름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거나 휴식하고 싶을 때 차나 디저트를 먹는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여유로움을 줄 수는 있다. 아름 씨와 종철 씨는 자신들이 만든 차나 디저트가 사람들 곁에서 좋은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산에서 빵집 ‘구운’을 할 때부터 나름 단골이었던 나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소리 없이 강한 자 유아름, 넷플릭스에서 재미있게 봤던 <핫스팟>의 이상하지만 귀여운 외계인 같은 이종철. 어쩌면 인생의 워크엔드를 완주에서 보내고 있을 이 두 사람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곳 완주에서 오랫동안 빵을 구우며 다른 이들에게도 여유로운 워크엔드를 만들어주길...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고산면 화정마을 어르신들의 추억의 맛 <부뚜막 레시피> 최우수상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고산면 화정마을 어르신들이 펴낸 요리책 <부뚜막 레시피>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뚜막 레시피>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수시로 회의 하며 대상 음식을 선정하고, 각자의 비법을 공유해 하나의 조리법으로 완성했다. 책에 담긴 음식 이름과 재료 그림도 어르신들이 직접 그렸다. 미디어 활동가 이경선, 김상미 씨가 이 과정을 함께하며 책의 전반적인 구성과 완성을 도왔다.

이경선 씨는 "고단했던 시절에도 어머니들의 밥상은 늘 정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 책은 그런 따뜻한 기억을 다시 불러 모은 작은 기록물"이라고 말했다.

꼬창떡, 애기고추찜, 우렁이 토란탕 등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려낸 추억의 음식 17가지를 한데 담은 <부뚜막 레시피>는 특정 개인의 손만이 아닌, 여러 어르신의 기억과 지혜를 모아 완성한 마을 공동의 요리비법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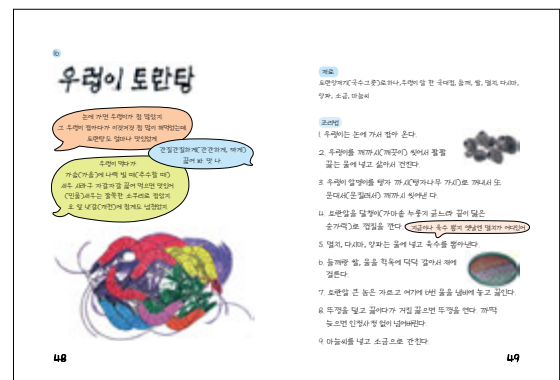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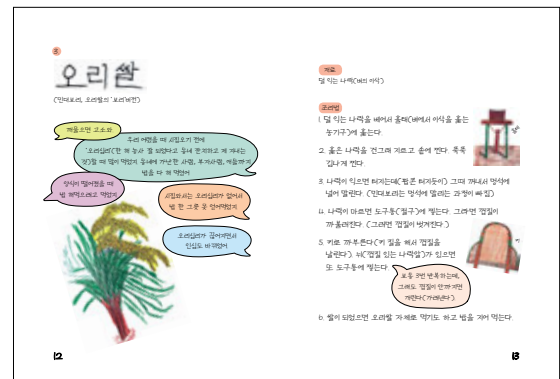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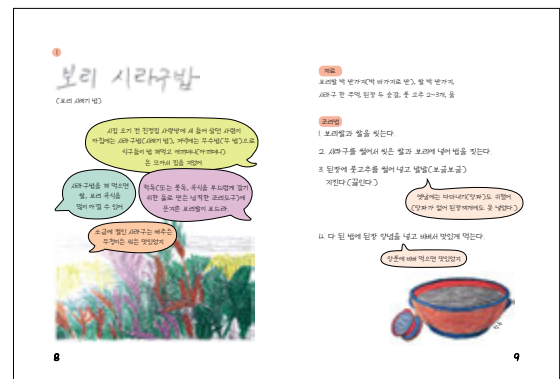
책에 수록된 음식 가운데 참새볶음, 고구마줄거리탕, 무수전 등 6가지는 요리 영상으로도 제작됐다. 짧은 세로 영상 3편과 조리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 3편으로, 책 속 QR코드를 통해 완주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화정마을 어르신들은 상복도 넘쳤다. <부뚜막 레시피>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2024년 제작한 단편영화 <그때 그 시절>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콘텐츠 대잔치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한편, 화정마을 어르신들은 완주미디어센터와 함께 4년째 미디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첫째 영상자서전 제작을 시작으로 사진기록집 <아느작아느작 꽃마실>, 단편영화 3편 제작에 이어 올해 <부뚜막 레시피> 발간까지, 마을의 역사와 기억을 기록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정마을 어르신들이 엮어낸 '부뚜막 레시피'의 삽화를 그리고 있다.



2025년
완주군마을공동체
희망나눔 한마당

따뜻한 동행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완주군마을공동체가 한 해를 돌아보며 따뜻한 연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5년 완주군마을공동체 희망나눔한마당’이 지난 12월 16일 오후 3시 완주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동행,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화합의 날’을 주제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이웃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행사는 성과공유존을 통해 2025년 완주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식전공연으로는 창포마을 다듬이 공연이 무대에 올랐으며 이어 신봉마을 민요공연, 두억마을 지갯장단 공연, 도계마을 난타공연이 차례로 펼쳐져 현장에 활기를 더했다.

공연 후에는 명랑운동회 신발 던지기 게임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웃음이 이어졌다. 또한 연말을 맞아 나눔의 시간도 마련됐다. 완주군마을공동체는 정심원과 선덕보육원에 마을공동체 상품을 후원하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소외계층에게는 더욱 힘겨울 수 있는 연말이지만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며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뜻 깊은 자리였다.

완주군마을공동체 관계자는 “마을이 함께 만들어온 한 해의 성과를 나누고, 작은 나눔으로 따뜻한 연말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마을과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두억마을
지갯장단
공연



신봉마을
민요공연



도계마을
난타공연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대와 성과 공유

완사넷 2025 송년의 밤&소셜굿즈어워즈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지난 12월 11일 삼례 새참수레에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소셜굿즈 어워즈’ 행사를 개최했다. 한 해 완주 사회적경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완주 곳곳의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2025 조합원 뉴스’를 시청하며 시작되었으며, 이어 진행된 ‘2025 소셜굿즈 어워즈’ 시상식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조직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시상을 넘어 공동체 놀이와 교류의 시간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각 조직원들이 벽을 허물고 재치와 웃음을 나누며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근석 완사넷 이사장은 “2025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조합 내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조합사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네트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이번 송년의 밤을 통해 확인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고양이 양생원과 호로코로노도
년 열두 달 리기 2026



#윤대라 #artistDERA #울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멧뿍이 검제,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가브리엘레 레바글리아티 글 | 와타나베 미치오 그림 | 책속물고기

나는 [] 배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지요.
물고기한테도
말이에요.

-본문 중-

‘배움’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배운다’고 말하는 걸까.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 이거 왜 배워야 해요? 왜 해야 해요? 나이 들수록 ‘배운다’는 것에 자주 골몰하는지라 비슷한 종류의 물음을 들으면 솔직히 반갑고 재미있어서 나는 말이 길어지고, 아이들은 한숨이 길어진다.

양육필독서나 아이를 잘 키웠다고 인정(?)받는 양육자의 말들을 보면, 부모가 많은 경험 기회를 주어야 아이가 진로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진다고, 어떤 세계에 아이의 재능이 있을지 모르는데 부모가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아 아이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아이 미래는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경험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등등 대부분 ‘발도 빠르고 눈치도 빠른 양육자=훌륭한 아이’라는 공식의 주장이 많다. 어느 정도 미안하고, 후회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나는 내 상황에 가능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또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은 체험으로 가득하다.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매일 수행하는 업무에서, 삶의 근간이면서도 티 내지 못하는 활동들에서 몸이 느끼는 증거와 과정들이 쌓여 나만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곧 배움이 된다.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들. 왜 나는 바느질을 좋아할까, 왜 나는 수학문제 푸는 것이 재미있을까, 왜 나는 계속 누워있고 싶을까, 왜 나는 말하는 것이 즐거울까, 왜 나는 자주 외롭다고 느낄까, 왜 나는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좋을까, 왜 커피가 자꾸 좋아질까, 왜. 왜 나는, 이런 궁금증들을 하루,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반복해보면 신기하고, 궁금하고, 심지어 ‘나’에게 설렌다. ‘배운다’는 것은 어쩌면 내 상태를 알아가는 것, 알아차려 나에게 좋은 방향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아닐까.

배움의 의미, 그러니까 “이거 왜 해야 해요?”에 대해 알고 싶다면, 내 일상에 집중해 궁금증을 갖고 나를 정리해보는 훈련을-마지막 문장처럼-지속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수 조건이다. 애정도, 결과물도, 하물며 음식을 먹으려 해도, 차를 마실 때도 그렇다. 끊임없이, 빈틈없이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이 자신이 더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몰두해보고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 시간이 곧 나에게 배움이 된다는 것을, 일상에 배움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도록 너른 시간이 주어진다 아이들 한숨도 약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시간에 적어도 게임만 하지 않는다면.

감나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063-262-31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설레

#79 연식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열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12월 생태놀이터 축제

겨울에는 겨울답게 놀아요.

글=문화기획자 윤혜진



5번째 생태놀이터 축제, 낙낙히에서 매년 12월, 우리는 생태놀이터 축제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생태놀이터 축제는 새로운 공간 낙낙히에서 열렸습니다. 놀이를 매개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올해는 아이들뿐 아니라 양육자, 그리고 서울에서 온 축제 기획 크루까지 함께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낙낙히에는 완주와 전주를 넘어 보성, 서울, 수원에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얼굴과 익숙한 얼굴이 섞여 있었지만, 놀이 앞에서는 모두가 금세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오래 매달리기, 달리기, 멀리뛰기가,

단체전에서는 줄다리기와 줄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승패를 가리는 경기였지만, 이기기 위한 경쟁보다는 서로를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엔 61초였는데, 이번엔 78초예요!” “축하해!” “내가 이 나이에 언제 이렇게 달려보겠어?!” “나, 오래 매달리기 잘하는 거였네요.” 7살 아이부터 50대 어른까지,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뛰고 매달리고 응원하는 동안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숫자로 남았지만, 더 오래 남은 것은 ‘함께 땀 흘리며 놀아본 경험’이었습니다. 이어진 프로그램은 불 마스터 대회였습니다. 화장지나 솜 같은 인공 점화재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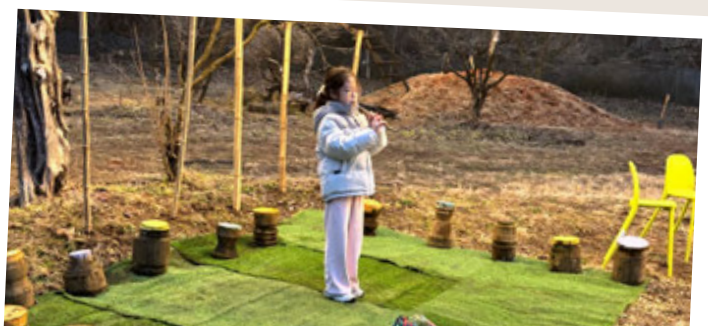
오직 자연재료와 파이어스틸만으로 불을 피우는 도전입니다.
 참가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마른 나뭇가지, 호두껍질, 솔방울, 나뭇잎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작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료를 차곡차곡 쌓고,
 파이어스틸을 왼 손에 힘을 주어 몇 번이고 긁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내린 비 탓에 재료들이 충분히 마르지 않아
 불을 피우는 일은 쉽지 않았고, 모두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와!!!! 아저씨, 나 불 피웠어요!!”
 라는 외침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12월의 불 마스터 대회의 주인공은 7살 친구였습니다.
 불을 피우느라 손이 조금 데이긴 했지만,
 상처의 아픔보다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발갛게 상기된 얼굴에는 웃음이 만개했고,
 개인용 파이어스틸과 불 마스터 배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열심히 놀고, 온몸으로 겨룬 뒤
 이제 모두의 배가 슬슬 출출해졌습니다.

함께 주방을 사용하는 우리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각자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누어 오고, 다회용기와 수저를 가져옵니다.
 시원한 동치미, 굴, 파배기, 고구마까지!
 상 위에는 하나하나의 마음이 함께 놓였습니다.
 엄마, 아빠들과 함께 만든 아궁이에 솔을 걸어 떡라면을 끓이고,
 한쪽에서는 햄살로 뽑은 가래떡을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놀았으니,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있을까요.
 생태놀이터 축제의 마지막 순서이자 하이라이트는
 바로 장기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장기자랑 할게요!”
 아이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장기자랑 무대.
 올해 1학년이 된 친구의 졸업기 20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4학년 친구의 첫 데뷔 무대가 된
 피리 연주와 음악 출넘기,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의상까지 갖춰 입고 선 기타 연주,
 그리고 아빠의 하모니카 협연까지.
 노을이 지기 시작한 시간,
 조명 아래 마련된 작은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잘하는 모습보다, 용기 내어 선 그 순간들이 더 큰 박수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잘 놀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조금씩 함께 자라며 계속 잘 놀아보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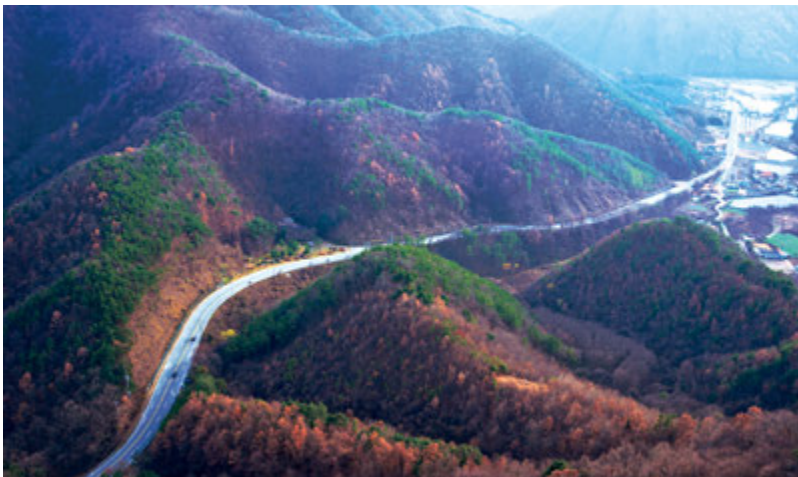


구불구불 운주 말골재 터널 뚫렸다



터널 개통 전

터널 개통 후



금만정맥을 가르는 말골재



수청마을 쪽에서 바라본 터널 입구

지난해 12월말 임시 개통, 700m 왕복 2차선 도로

운주면 장선리 말골재 터널이 뚫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착수한 화산~운주 도로시설개량공사의 일환인 말골재 터널은 길이 700m의 왕복 2차선 도로로 2025년 12월말 임시 개통됐다. 국도 17호선이 지나는 말골재는 수청마을에서 운주면 장선리를 연결하는 금만정맥이 지나는 구불구불 고갯길로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걸어서 재를 넘는 등 수많은 주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정식 개통은 오는 3월 예정이다.

공동체 영화 <더 펠링 The Felling> 완주 상영을 마치고

나무를 지키는 밤,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다

글=김기수(완주녹색평론읽기모임)



완주 상영회에 참가한 제주·전주·완주·서울의 활동가들

지난해 12월 9일 저녁,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던 날, 완주의 작은 상영 공간에는 묘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영국 셰필드 가로수 벌목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더 펠링(The Felling)>을 함께 보고, 우리 동네 나무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영화 상영회가 열린 덕분입니다. “그냥 환경 다큐 한편 보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상영이 끝난 뒤에는 표정이 조금 달라진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 펠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셰필드 시민들의 6년 싸움을 담은 영화입니다. 시 행정은 도시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17,500그루의 가로수를 베어내려 했습니다. 행정의 설명은 “노후 수목 정비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동네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시설물’로 취급되어 사라지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셰필드 나무행동그룹(STAG)’을 만들어 나무에 하트 장식을 걸고, 새벽마다 벌목 현장에 나와 공사 차량 앞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행과 재판도 이어졌지만, 영화는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시민들의 얼굴을 집요하게 비춥니다. 스크린 속 장면은 분명 영국의 거리인데, 상영회에 앉아 있던 완주 주민들 눈에는 전주천, 제주 비자림로, 완주 신흥계곡의 몇몇 풍경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싸움은 나무를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의 비민주성을 폭로하며 시의회 시스템을 바꾸는 정치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무를 지키려던 마음이 도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동력이 된 셈입니다.

상영 후에는 한국의 나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에 맞서 숲을 지키는 제주의 비자림로 활동가들은 “뒤편 하다가 보면 뒤편도 이어진다”며 희망을 전했고, 완주 신흥계곡의 단풍나무 이식 사건을 겪은 완주 자연지킴이연대 이선애 활동가는 나무를 단지 ‘제거 대상’으로만 보는 행



공동체 영화 상영 후 참여자들의 의견 교류 시간

정의 시선에 깊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완주 상영회에는 제주·전주·완주·서울에서 온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나무를 매개로 경험을 나누는 장면은, 지역을 넘어선 생태 민주주의 연대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셰필드에서 12,000여 그루의 나무를 살려낸 것처럼, 제주에서 공사를 멈추게 하고 벌금을 물린 것처럼, 전북도 감사위원회의 경고를 끌어낸 것처럼, 완주에서도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말이 그날 밤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완주 신흥계곡의 단풍나무, 전주천의 버드나무, 그리고 제주 비자림로의 삼나무를 지나칠 때 이 상영회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 있어 줘서 고맙다.”

그 인사가 모여, 완주만의 ‘생태민주주의’를 키워가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 있기를 꿈꾸며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5) 헨델의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하와이에서 햇볕보다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그것을 가려주는 나무들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서 있는 바오밥나무, 와이키키 해변에서 '걸어가는 나무'라 불리는 반얀트리.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땅으로 뿌리를 늘어뜨리고 다시 그 뿌리로 몸을 세우며, 자기 자신을 확장해 또 하나의 그늘을 만듭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처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오래 살아남은 생명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헨델의 [그리운 나무 그늘이여]("Ombra mai fu")를 세실리아 바르톨리의 목소리로 들을 때면 이 하와이의 나무들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이토록 사랑스럽고 다정한 그늘은 없었네." 왕 세르세가 찬미한 것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쉼의 자리였습니다. 바르톨리의 노래는 그 쉼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듯 오래 살아온 몸의 기억을 따라 천천히 그늘 속으로 들어갑니다.

헨델의 이 아리아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노래는 세계 음악사에서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흔히 [라르고]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지만 본래의 제목은 이탈리아어 가사 첫 구절에서 온 것입니다. 번역하면 "이토록 사랑스럽고 다정한 그늘은 없었네" 썸 됩니다. 오페라에서 이 노래의 주인공은 페르시아의 왕 세르세. 거대한 제국을 거느리는 권력자이지만 오페라의 첫 장면에서 그가 찬미하는 것은 전쟁도 영광도 아닌 한 그루 나무의 그늘입니다.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가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그들이 사랑스럽고 다정하며 더없이 부드럽다고 말할 뿐입니다. 설명도 서사도 없습니다. 헨델은 이 단순한 문장을 반복되는 선율 속에 길게 늘어뜨립니다. 음악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노래는 극 중 아리아를 넘어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힘을 가진 자가 멈추는 순간 비로소 그늘을 발견하게 된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 카스트라토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소프라노 음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를 훼손당했던 존재들. 천상의 음색 뒤에는 잔혹한 인간 희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그늘을 찬미하는 이 노래 자체가 어찌면 이미 너무 많은 햇볕을 견뎌온 목소리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실리아 바르톨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실려 있는 음반 [성스러운 희생] (Sacrificium)의 의미는 '성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바쳐진 희생' 정도가 됩니다.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희생당한 카스트라토를 기리기 위한 독특한 프로젝트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바르톨리는 카스트라토를 그냥 흉내 내지 않습니

다. 대신 현대의 메조소프라노로서 온전한 여성의 몸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노래는 그냥 매끈하지 않습니다. 음 하나하나에 미세한 숨결과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아니라 기억을 품은 인간의 소리를 내고 싶었나 봅니다. 노래는 위로를 설득하지 않고 그저 자리를 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와이의 저 나무들처럼.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일 때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의 그늘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한 그늘이 될 수 있는가? 하와이 낮은 땅에서 어렵게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딸을 위해? 아직도 박사학위라는 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아들을 위해? 막 세상에 도착한 손주 레오를 위해? 혹은 묵묵히 곁을 지켜온 시인 벗들과 이제 막 자신의 길을 찾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그늘이 된다는 것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버터주는 일입니다. 빛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빛이 너무 강할 때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일입니다. 반얀트리는 스스로 그늘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리에서 오래 버티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햇볕을 피하고 싶은 이들이 그 아래로 자연스레 모여듭니다. 바르톨리의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위로를 강요하지도 않고 감동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느리게 들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듣는 이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그 그늘로 찾아들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용진 두억행복드림마을 박종배 대표 대통령상 수상

용진읍 두억행복드림마을 박종배 대표가 마을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다.

이번 대통령상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박종

배 대표는 마을 주민 주도의 문화활동을 통해 공동체 기반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박 대표가 이끄는 두억행복드림마을은 주민 참여형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모델을 구축하고 수익의 지역 환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기력이 닿는 한

농/촌/별/곡



차 남 호

병오년, 붉은 말의 해로 접어든 지 며칠이 지났다. 간지 그대로 활기가 넘치고 진취적인 해가 되리라는 덕담이 오간다. 이래저래 그들이 질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제발 그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 온다.

새해를 맞고 보니 자연스레 나이를 꼽아보게 되고 이제 환갑, 진갑 다 지난 몸이 되었음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물론 그것을 현실문제로 여기거나 의식하지는 않지만 '말값'이라는 게 있어 환갑의 무게는 그리 가볍지가 않다. 그러니까 환갑을 지나면 살 만큼 살았으니 축하 잔치를 베풀고, 언제 세상을 떠도 '호상'이 되던 게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니란 말이다.

내 기억만 떠올려봐도 그렇다. 농사꾼이던 우리

할아버지는 갓 권을 넘기자 농사일에서 손을 뗐다. 느닷없이 고된 농사일을 혼자 떠맡게 된 우리 아버지는 삽자루를 내팽개치는 것으로 언짢은 심사를 드러내고 말았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그리 중뿔난 일도 아니었다. 더욱이 환갑 잔치상까지 받고 보면 농사 일선에서 물러나는 건 당연하고 그때부터는 '담'으로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다.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된 지 오래다. 잔칫상은 그만두고 아무도 환갑을 챙기지 않는다. 오히려 뜻하지 않게, 그리고 장난기가 잔뜩 묻어나는 '환갑 생일상'을 받기라도 하면 낭패로 여기거나 몹시 언짢아하는 게 요즘 세태인 듯하다.

게다가 농사일을 그만둔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어디 한 번 들녘에 나가보라. 트랙터를 몰고, 콤팩트를 돌리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환갑을 훌쩍 넘긴 이들이다. 게 중에는 일흔을 헤아리는 이도 꽤 된다. 육십대가 마을 '청년회장'을 맡는 세상인데 당연한 일 아닌가. 내 주변에는 여든을 넘긴 나이에 논배미에서 김을 매고 물꼬를 보는 이도 더러 있다. 또한 소막(우사)에서는 사료를 주고 여물을 먹이며 소를 키우는 이들도 보인다. 물론 시설(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이들도 빼놓을 수 없다. 농사현장이라면 어디를 가든 어렵잖게 나이 든 농부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현시대에 접어들어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의학이 크게 발달하면서 인류의 수명이 크게 늘었으니 어찌면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과연 그럴까? 수명이 늘면 생애 노동기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게 당연할까? 육십 평생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편히 쉬면서 여유를 누릴 만도 하지 않은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새끼들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아등바등 매달리느라 미뤄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즐기면서 자신의 온 삶을 찬찬히 갈무리할 때 아닌가 말이다.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을까만 너도나도 농기계를 몰고, 소막을 지키고, 비닐하우스로 향한다. 왜? 값야야 할 농기계 할부금이, 축산-시설채소 용자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걸 갚으려면 딱히 다른 수가 없다. 설령 이미 다 갚았다 하더라도 멀쩡한 기계와 시설을 그냥 놀리자니 너무 아까운 건 당연한 노릇이다.

나는 지금 돌을 던지려는 게 아니다. 농사꾼의 실존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실 나 스스로도 기력이 닿는 한 벼농사를 계속 지을 생각이다. 기계 할부금이 남아서도, 시설 용자금이 있어서도 아니다. 쌀 팔아서 주식하고, 강남 아파트 투기하겠다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고, 문제는 '나이듦' 자체가 아니라 농사꾼 자신의, 대안과 공동체의 상호작용 아닐까? /비봉 염암마을

완주군의회에서는

딸기농가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논의

완주군의회, 삼례 딸기축제 사전 간담회 개최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월 8일 의회 의장실에서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삼례 딸기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열고 축제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례 딸기축제가 해마다 규모와 성과를 확대하며 완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 축제로 성장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안형숙 관광축제과장, 정철우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강신학 삼례농협 조합장 등 축제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전반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삼례농협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가 참여 확대, 문화재단과 연계한 콘텐츠 구성, 우석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협과 연계한 딸기 판매·체험 프로그램 강화 ▲문화재단 협업을 통한 문화·공연 콘텐츠 내실화 ▲우석대학교 학생·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험·홍보·운영 프로그램 확대 ▲관광객 동선 및 편의시설 개선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 운영 모델 구축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완주군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인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윤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 취 재 · 글 윤하나, 성다연
- 편 집 장혜영, 이윤영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2026

새해에도 완주 마을 곳곳을 다니며 작은 이야기들을 찾고, 듣고, 전하겠습니다. 늘 함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심한 완주 여기로 모이자!



2026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붉은 말의 진취적인 기상처럼 힘찬 1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라!

고산퍼머컬처대학 2026년 신입생 모집

고산퍼머컬처대학은 반복되는 일상과 도시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농촌을 기반으로 생태적 가치를 중심에 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청년과 성인을 위한 작은 학교다. 퍼머컬처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삶, 지역에서의 자립과 실천을 주요 교육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교육 과정은 농촌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먹거리 생산, 생태적 주거, 공동체 생활, 지속가능한 삶의 설계 등을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일상과 연결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생태적 삶과 농촌 기반의 삶에 관심 있는 청년 및 성인이며 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2026년 과정은 10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다. 입학 지원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고산퍼머컬처대학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3-291-9811
주소: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10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미영 팀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의 조미영 사회적협동조합장이 농촌 돌봄 및 사회적 농업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완사넷에 따르면, 조미영 팀장은 지난 12월 16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개최된 '2025 전국 농촌돌봄서비스 성과공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 팀장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완사넷의 사회적 농업 팀장을 맡아 '전북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해 왔다. 조 팀장은 그간 전북 지역 곳곳에서 사회적 농업 주체들을 발굴 및 육성하고, 개별 농장들의 역량 강화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새로운 병오년(丙午年) 1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1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월 17일 (토) 오후 2시	플로우	애니	전체 관람가
1월 24일 (토) 오후 2시	리턴	드라마	12세 관람가
1월 31일 (토) 오후 2시	F1 더 무비	드라마	12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월 27일 (화) 오후 7시	퍼스트 카우	드라마	12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완주한우협동조합, 주민자치 활동 위해 1,000만 원 기부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자치·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사회적협동조합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완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자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근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완주한우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연대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자치 활동이 꽃피울 수 있도록 소중한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2026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 모집

완주군립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따뜻한 독서 경험을 선물할 '2026년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 단원을 모집한다.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은 책을 매개로 세대와 이웃을 잇는 찾아가는 독서문화 나눔 사업이다.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동화구연과 책 놀이 활동을 펼치며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접수 기간은 1월 16일까지다. 선발된 단원들은 2월부터 3월까지 총 16회에 걸친 전문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동화구연 방법과 책 놀이 활동 기획 등 실질적인 현장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뒤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을 수료한 단원들은 4월부터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등 20개 기관을 본격적으로 방문해 11월까지 현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운이 가족을 기다립니다

라운은 시 보호소에 입소했다가 안락사를 앞둔 상황에서 구조돼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체중 약 25kg의 수컷인 라운이는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1인 가구에서도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다. 곰처럼 묵묵하고 차분한 매력을 지닌 라운은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고 산책을 즐기는 아이로, 현재 따뜻한 손길과 일상을 함께 나눌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다.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라운이

체중: 약 25kg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문의 (@pureonyxlaon)



다정다감협동조합 용진음 '착한가게' 26번째 주인공

다정다감협동조합(대표 최은영)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 후원 캠페인인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하며 용진음의 26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장애인들의 직무 훈련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곳이다.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기탁되는 후원금은 용진음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비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최은영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기농 요거트 맛집 '청개구리' 오픈 이벤트



유기농 원유로 만든 꾸덕하고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는 요거트 맛집 '청개구리'가 개점 기념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매장을 방문해 요거트 2개를 구매하면 1개를 더 증정하는 '2+1 이벤트'를 통해 청개구리만의 신선한 저당 요거트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주소: 고산면 고산로 95 (고산우체국 맞은편)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화, 수요일 휴무)
 문의: 010-3235-9945

2026년 아파트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완주군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살맛나는 완주형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아파트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아파트형과, 재능기부 등 사회적 환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아파트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아파트 전체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취미·문화 프로그램은 1~3개까지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별 지원금은 각 100만 원 이내다. 이 밖에도 운영위원회 운영비 20만 원과 단지별 주민화합 행사비 80만 원이 포함된다.

자율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 10% 이상이 필요하다. 재능기부, 나눔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체는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체 소개서, 운영위원회 명단, 주민참여 공고문,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파트형과 자율형 모두 동일한 서류가 요구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완주군청 3층 경제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은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개소 수와 공동체별 사업량, 사업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 아파트형과 자율형을 합해 단지당 최대 3개까지 활동이 가능하며,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자율형 사업을 포함해 최대 4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메뉴 내 알림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완주군청 경제정책과(063-290-2494)로 하면 된다.

2026년 완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완주군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잠시 쉬어가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이다. 완주군민의 경우 최대 45세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군 경력이 있는 경우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자기분석과 취업 트렌드 파악,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법 등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물론, 생활경제와 금융, 문화, 건강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참여 프로그램과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도전을 뒷받침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 말까지이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완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모집인원: - 단기 프로그램(5주): 24명
 - 중기 프로그램(15주): 15명
 - 장기 프로그램(25주): 15명



신청방법: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글 신청서 작성 또는 QR코드
 문의: 063-219-0412/0413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신규강사 '나도 완주강사' 모집

'나도 완주강사' 사업은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강사 발굴과 강의 기회 제공을 통해 주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선정된 강사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공공시설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운영 장소는 도서관, 가족문화교육원, 삼봉사회복지관 등 완주군 내 공공시설이다.

강의는 1인 1강좌를 원칙으로 하며, 강좌당 총 4회 운영된다. 1회 강의 시간은 1~2시간으로 구성되며, 수강 대상은 만 19세 이상 완주군민이다. 강의당 수강 인원은 4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강사 선정 이후 정원 4명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식·경험·재능·정보 등을 나누고자 하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다. 다만 사행성·판촉·종교·정치·상업적 선전 목적의 프로그램이나, 본인이 운영 중인 학원·공방·연구소 등 업종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완주군 및 지역 내 기관·단체 사업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된다. 단, 보조강사 경력은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ok7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강의계획서이며, 신청서 양식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평생학습팀(063-290-3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11회 완주 꽃감축제

임금님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종시부터 명품 운주 흑감, 끈끈한 두레시까지 완주의 겨울 맛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11회 완주 꽃감축제'가 열린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완주군청 대형주차장 및 어울림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고품질 꽃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부스와 풍성한 먹거리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특히 얼음썰매장, 꽃감 컬링, 화덕 체험 등 어린이를 위한 겨울 놀이터가 마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대표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간: 2026. 1. 16(금) ~ 1. 18(일)
 장소: 완주군청 대형주차장 및 어울림 광장 일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완주군이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의 아침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완주군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바쁜 출근 시간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산단 근로자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해 근로 여건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1월 15일부터 소년시 까지이며, 운영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어울림카페다.

아침 식사는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식당 1천 원에 제공된다. 판매 품목은 도시락 100개와 컵밥 100개로, 하루 총 200식이 준비된다.

판매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당일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식사 판매는 산단 근로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산단 내 사원증이나 신분증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026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세요!

완두콩 직원 일동